

90일간 시민들의 생활실험 전개

전주시, 내년 2월까지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공모 선정된 18개 팀이 문제 해결 위한 아이디어 실험

시민들의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텀블러를 개발하고 취업지망생을 위한 정장 무료대여 사업과 길고양이 문제 해결 등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실험이 전개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8개 프로젝트를 선정, 시민들이 90일 동안 스스로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과 아이디어를 찾고 실험해보는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의 리빙랩

프로젝트는 동네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주택가 골목, 아파트 단지, 재래시장, 학교교실, 회사의 생산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삶의 현장을 실험실로 한다.

공모에 참여한 28개 프로젝트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개 팀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90일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자유주제와 기획주제, 프로토타입 등 3개 분야로, 자유주제는 선정된 8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기획주제는 청년·환경·성평등에 대한 8개 프로젝트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이 지원되며, 프로토타입은 시제품 제작 2개 프로젝트에 각각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청년팀 놀라스틱은 '텀블러가 불편한 당신에게'를 주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대체 텀블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피나비프로젝팀은 길고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캣맘들의 소통과 공유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또한, 강성훈 카프카서점 대표는 '첫독자가 되어주세요' 프로젝트로 지역 신인작가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신인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등을 진행하고, 전주사회경제네트워킹은 평화등을 대상으로 전주형

지역화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6일 프로젝트 선정팀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주민 주도 생활실험과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리빙랩 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과를 바꿔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90일 실험에 도전하는 팀들은 평소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을 이번 프로젝트에 담아 전주시의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 딸기 전문농업인 30명 탄생

시 농업인대학 14기 졸업식

우수한 품질의 딸기를 재배함으로써 농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문농업인이 탄생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1일 지역사회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주시 농업인대학 제14기 졸업식'을 갖고, 총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농업인대학은 농업현장의 애로기술해결과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1년간 100시간 이상 운영되는 중장기 심화교육과정이다.

이번 농업인대학에서 교육생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총 22회, 100시간의 일정으로 기초 이론부터 심화 교육과 실습형 사례중심 교육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앞서, 센터에서는 지난 2005년 친환경 농업과정을 시작으로 복숭아와 배 등 전주시 주요 품목별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4기에 걸쳐 총 518명을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했다.

졸업생 대표인 김경완 씨(고광동)는 이날 "1년 동안 수업과 연계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해 관행의 농사방식에 벗어날 수 있었고, 작물재배 시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 농작물을 대상으로 지역농업현안 해결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주제를 선정해 농업인대학을 전문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야호학교 청소년 길잡이 추가 17명 배출

전주시, 티움활동단 양성교육 수료식... 내년부터 역할 수행

전주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될 활동가를 추가 양성했다.

시는 지난 20일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야호학교 다목적실에서 오는 2019년에 활동하게 될 야호학교 티움활동단 양성교육에 대한 수료식을 열고 총 17명의 교육 수료자를 추가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야호학교는 청소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 현재 2018년 2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야호학교 티움활동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자치활동 프로젝트의 팀별 길잡이 교사로, 청소년이 자기 주도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9월부터 총 10

주간 진행된 양성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교육 중 느끼고 배웠던 내용에 대한 진솔한 소감을 발표하며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역량 있는 티움활동가를 양성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전문 교육 위탁 기관을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눠 신규 참여 희망자에게 교육을 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10주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에 박수를 보낸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야호학교가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티움활동단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며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교육 실험을 위해 전주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격려했다. /송효철 기자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김치 500포기 취약계층에 전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일 송천2동 관내 독거노인·장애인·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15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추진한 김장김치담그기는 2018년 전주형동네복지 '행복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돼 5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한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원 30여 명

이 송천2동 주민센터에서 3일간 진행했고, 행사가 겹쳐 함께하지 못한 자생단체에서는 부재료 등을 후원해 사업에 동참했다.

정성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해 준 협의체 회원들과 자생단체 임원 및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재료로 아낌없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생단체에도 감사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 '동네 작은 실험실' 사회 변혁을 꿈꾸다

일상 문제해결 시민의 손으로



전주시는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90일 동안 스스로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과 아이디어를 찾고 실험해보는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16~17일 열린 사전워크숍.

전주시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90일 실험, 사회문제해결 생활 실험실 공모를 추진, 최종 1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민선6기부터 다울마당과 시민원탁회의, 현장시청 등 전주시의 중심시책을 입안하고 현안사업을 결정할 때 현장에 있는 평범한 주민들 모두가 설계자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함께했던 전주시가 이번에 선정한 동네의 작은 실험실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상에서 사회문제 해결해가는 리빙랩
우리말로 '생활 실험실'이란 뜻의 리빙랩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공공, 기업, 시민이 협력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미국 MIT대의 미첼(W.Mitchell)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리빙랩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에도 같듯이나 안전, 환경과 같이 정작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안전, 환경, 정보격차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용자, 즉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 실험의 환경', 또는 '사용자 주도의 개방적 혁신을 위한 공공-민간(자본)-시민의협력체계(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를 통칭하는 리빙랩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 특정 공간에서 구현되며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리빙랩은 해외에서 사회혁신을 위

한 대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06년 유럽리빙랩 네트워크(ENaLL) 출범 이후, 약 440개 이상의 리빙랩이 운영중이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에서 다양하게 리빙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리빙랩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로 서울의 성미산마을과 대구 유성구 어은동의 '안녕축제'를 들 수 있다.

▲전주시, 리빙랩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디자인하다
전주시는 민선6기 들어 이미 '떠나지 않는 도시' 즉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제를 지역사회가 해

리빙랩, 지역사회 커뮤니티서 시민 협력 참여형 혁신 플랫폼 미국 MIT대학 미첼 교수 첫 제시 생활 속 특정공간에서 구현 사용자 직접 문제 해결이 원칙 승암 막걸리 공작단 '모범 사례' 결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전주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전주형 공동체 사업인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들 공동체들은 정기적 마을장터 개설과 마을텃밭 등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누는 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각종 재능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전주,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해오고 있다.

승암새마을을 부녀회원 중심의 '승암 막걸리 공작단'의 마을 수익 창출과 노후화된 마을의 주택을 재능기부를 통한 집수리 프로젝트 역시 마을의 동네 실험실 모범 사례다.

또한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 공실과 노후화된 동네 외관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던 마을을 관광객이 북적이는 마을로 탈바꿈시킨 '사학동 예술마을' 주민들의 동네 실험실이 가져온 변화이다. /송효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아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